

술자리에서 살아남는 노하우 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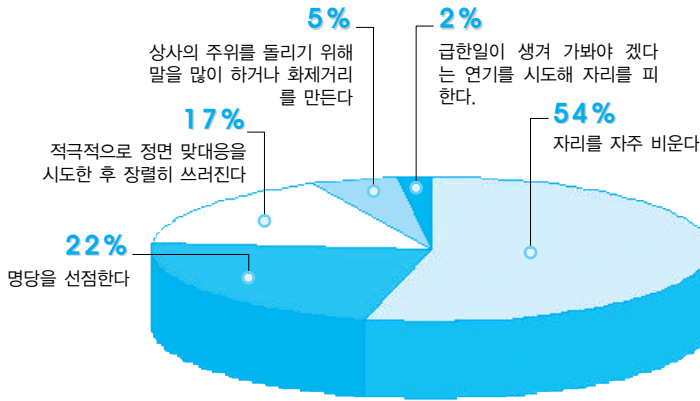
국세청에서 밝힌 술 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20세 이상 성인인구 3,417만 명을 기준으로 1인당 92.1ℓ의 술을 소비하여 2004년의 1인당 술 소비량 99.1ℓ 보다는 감소하였다고 한다. 술 종류별 1인당 소비량은 맥주가 51.6로 성인 한사람이 1년간 500㎖들이 103병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. 소주는 26.4ℓ를 마셔 360㎖들이 73병에 해당했다. 이밖에 탁·약주(60.0ℓ), 과실주(0.58ℓ), 청주(0.61ℓ), 위스키(0.30ℓ) 등의 순이었다.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이 엄청난 수치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. 직장에서 먹기 싫은 술을 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술 좋아하는 직장 상사에게 밋보일 수 있으니 적당히 마시며 분위기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.

남성잡지 '브이 매거진(V magazine)'이 지난달 서울 강남 남 일대 20~30대 남성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'술자리에서 살아남는 비법'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. 1위는 '자리를 자주 비운다', 2위는 '명당을 선점한다'로 나타났다. 한국 사회의 직장 술 문화에서 "저는 이제 그만 마시겠습니다!"며 당당히 술잔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직장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? 잦은 술자리에서 많은 양의 술을 들이킬 자신이 없다면 눈치껏 마시는 요령도 때론 필요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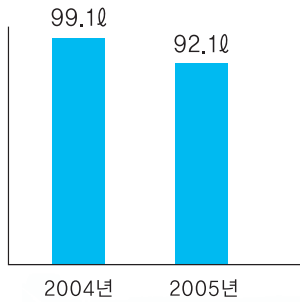
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'비법'으로는 '자리를 자주 비운다' (54%)가 꼽혔다.

화장실 다녀오기, 전화 받고 들어오기, 담배 사오기 등 여러 상황을 연출하고 자리를 비워 최대한 술을 받지 않는 것. 취하면 시간관념이 흐려져 잠깐 자리를 비운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, 자리 비우기는 실행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므로 자주 이용한다는 답변이 많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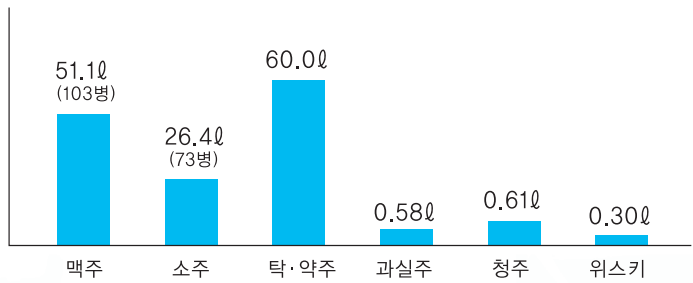
그 다음으로 '명당을 선점한다' (22%)는 대답이 차지했는데, 술을 권하는 높은 상사로부터 멀리 떨어져 앉거나, 되도록이면 문 앞쪽에 자리를 잡아 문지기 노릇을 하며 술을 피하고, 재떨이 심부름, 주문하기 등 바쁘고 부지런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남는 방법이다.



〈술자리에서 살아남는 비법〉



〈20세 이상 성인인구 1인당 술소비량〉




〈소비된 술의 종류〉

반면, ‘적극적으로 정면 맞대응을 시도한 후 장렬히 쓰러진다’ (17%)는 의견도 제시됐다.

연거푸 ‘원샷’을 하며 정면대응을 하되 적당한 양이 넘어가면 필름이 끊기는 연기력을 구사한다는 것이다.

특히 이 방법은 술자리 분위기가 잠시라도 자리를 피하기 힘들거나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상사 근처에 앉게 되었을 경우 감행한다는 의견이 많았다.

이밖에 ‘상사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말을 많이 하거나 화제거리를 만든다’ (5%)와 ‘휴대전화 알람으로 통화를 사칭한 후 심각한 분위기를 연출해 자리를 피하거나, 급한 일이 생겨 가봐야겠다는 연기를 시도해 자리를 피한다’ (2%)는 방법도 제시됐다. 

〈출처 : 브이 매거진〉